



##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오바마 현직 미국 대통령 국내 대학 최초 특강

#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최고 외국어 교육기관”

명예 동문증서 수여에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화답  
 박철 총장 “개교 60년만의 최대 경사, 글로벌 대학 인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학교 미네르바 홀에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그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이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국내 대학에서 특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6일(월) 10시 30분경 시작된 우리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은 30여 분간

진행됐으며 △KBSI TV △미국 ABC 방송 △백악관 인터넷 TV 등을 통해 전세계로 생중계됐다. 강연에는 박철 총장을 비롯해 △정몽준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영선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이문열 작가 겸 우리학교 석좌교수 등 국내외 인사 300여명과 우리학교 학생 700여명이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류와

소통 △북한 핵무기 △한국인자력 기술의 우수성 △분단 한국의 미래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이 3번째 한국 방문”이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을 많이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외대가 세계 최고의 외국어 교육기관 중 하나”라고 말해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연 말미에서는 “어떤 시련과 시험이 있더라도 한국과 미국이 결속해 함께 행

동하자”며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어로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연은 미국 정부가 직접 우리학교에 제안한 것이다.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은 “강연 계획을 전달받고 여러 대학을 미 정부에 추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백악관에서 한국의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평소 외국어 교육을 강조해 온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학교가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학교는 1995년부터 대학생 모의연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화역량에 중점을 뒀다. 우리학교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명예

동문증서를 수여했다. △교육을 향한 열정 △다국어에 대한 지원 △세계평화와 글로벌 시민정신 함양을 위한 그의 리더십이 우리학교의 교육이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화답해 청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박철 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학교를 방문하고 특별강연을 한 것은 학교의 글로벌 마인드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60년 동안 외국어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하고 많은 CEO와 외교관 등을 배출한 국제적 역량을 인정받은 계기”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상아 기자 82seosanga@hufs.ac.kr

지면안내
4 박철 총장 인터뷰 애프터(After)오바마 시대
 6~7 실무진 인터뷰 숨은 주역들의 활약상
 12 학생 특별 좌담회 특강과 우리학교의 미래

### 오바마 대통령님께

만 여명이 넘는 미국과 미주지역의 한국외대 졸업생이자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을 대표하여, 무한한 영광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담아 저희 모교캠퍼스 방문을 환영합니다.

차별화된 장학정신, 교육철학, 그리고 외국어와 국제지역학에 남다른 강조를 둔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수많은 전세계 수많은 기업, 정부, 외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배출하여 왔습니다. 대통령님의 이번 역사적 방문은 우리 졸업생, 재학생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말 한마디, 작은 제스처 하나도 학생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통령님의 한국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견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공적인 외대 출신 지도자들이 미국고등교육 시스템을 통해 훈련 받은 뒤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는 어떠한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 나

가는데 있어 한-미 관계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희들은 Sung Y. Kim대사님을 대표로 파견해주시고 김용박사님을 최근 세계은행 총재로 임명하신 결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님께서 개인 뿐 아니라 미국 내 한인사회의 업적과 공헌을 높이시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변화는 한국계 미국인 뿐 아니라 미국내 모든 이민자들에게 희망이자 응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방문에 감사를 드리며 대통령님의 연설은 많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의 인생과 미래에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씩 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2년 3월 2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미주동문연합회  
이영희 회장, 이덕선 이사장 올림

###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축하하며...

핵 안보 정상회의의 참석차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월 29일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방문하여 특별 강연을 합니다. 총동문회는 먼저 11만 동문의 이름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소중한 손님을 맞이하는 모교의 박철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미국 대통령의 방문은 그간 우리 모교가 국내 최고의 글로벌 대학으로서 쌓아올린 명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모든 동문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제고하는 경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ABC, 한국의 KBS 등 주요 방송사가 오바마 대통령의 스피치를 생중계하는 가운데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 모교의 미네르바 홀에 집중되는 것은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외대를 선택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개교 이래 60여 년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대한민국의 경

제 성장과 글로벌화에 앞장서 온 동문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며, 최근 강력한 내적 개혁을 추진하고 첨단 인프라 캠퍼스를 구축한 대학 집행부의 노고가 빛을 본 결과이기도 합니다.

세계평화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앞으로 ‘HUFSDoctrine’이 되어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핵 안보 정상회의의 정신대로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앞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진리·평화·창조의 교훈에 걸맞은 인재 육성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우뚝 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사를 축하하며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학교 담당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장 권순한

# 오바마 대통령 방문에 이문동 '들썩'

오전 8시, 외대앞 역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사람들의 기대에 가득 찬 얼굴 사이로 주변 시설을 확인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보였다. 인제부터 경찰들이 배치됐냐는 물음에 외대앞 역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24일부터 테러 방지 및 안전 점검을 위해 군경합동근무가 있었고 핵안보정상회담이 끝나는 27일까지 경찰들의 순찰이 계속될 예정"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하는 오늘은 특별히 경찰들이 더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역에서 나와 우리학교로 가는 길목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곳곳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어 마치 축제 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사거리 앞 국립사진관 주인은 "32년 동안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해왔지만 이런 행사는 처음"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느껴진다"고 감탄했다.

미네르바 캠퍼스 앞의 열기는 정문에서부터 느껴질 정도로 뜨거웠다. 신분 확인을 위해 길게 줄을 선 참가 학생들의 얼굴에는 지루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저마다 소곤거리는 목소리에는 연설의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까지 서려있었다. 한편 참가하기를 받지 못한 교수와 학생들 수백 명도 미네르바 캠퍼스 위쪽에 자리잡고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렸다. 우리학교를 방문한 KBS 취재진은 "학생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참여가 놀랍다"며 "순조롭게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약 10분간의 교통 통제 끝에 마침내 오전 10시 22분, 성조기를 단 리무진 대여섯 대가 정문을 통과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내내 홀 바깥에 모인 교수와 학생들은 입장이 끝난 미네르바 홀을 둘러싸고 연설장 안의 학생들 못지않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나온 마릴린 플럼리 교수는 "대통령을 못 봐도 아쉽지 않다"며 "앞으로 Hufs 스포츠로 전 세계에 알려질 이 순간의 현장 분위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연설이 끝나자 홀 바깥에서 기다리던 학생들은 연설에 참석한 친구들에게 달려가 소감을 묻기에 여념이 없었다. 임하늘(어문·그물어 10양)은 "비록 멀리서 연설을 봤지만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지를 깊이 공감할 정도로 카리스마와 흡입력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아영(사회·자전 12양)은 "나중에 큰 사람이 돼 당당해진 모습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재회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중 외친 "같이 갑시다"를 큰소리로 따라 외치며 미네르바 홀을 뒤로하는 학생들의 웃음 소리가 기억에 선명했던 하루였다.

강유나 기자 84yoona@hufs.ac.kr



▲ 미네르바 홀에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학생들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드러나 있다.

## 기대 반, 긴장 반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을 기다리며...



▲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중인 학교모습. 한·미 양국의 깃발이 눈에 띈다.

## 오늘 만큼은 청중자리로

국내외 유명 내·외빈 오바마 특별 연설에 함께해

3월 26일(월)에 우리학교 미네르바 홀에서 진행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하 오바마 대통령) 특별 연설장에는 초대된 700명의 학생 외에 국내외의 많은 유명 내·외빈이 청중으로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초대된 약 150명의 내외빈들은 연단 바로 앞에 자리해 오바마 대통령 못지않은 주목을 받았다.

외부 인사로는 △성김 주한 미국대사 △정경길 전대통령실 실장 △최영진 주미 한국대사 △정몽준 국회의원 △박영선 국회의원 △박선영 국회의원 △한덕수 전 주미 한국대사 △한승주 전 주미 한국대사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이배용 국가브랜드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학교 관계자로는 △권순환(서양어·스페인어 63 총동문회장 △이덕선(서양어·독일어 58 미주동문연합회 이사장 △윤윤수(사회·정외 66 FILA(휠라) 코리아 대표이사 △김형주(서양어·스페인어 83) 서울시정무부시장 △정은아(사범·한교 84) 방승인 △이문열 석좌교수 등이 강연에 참석했다. 방승인 정은아(사범·한교 84) 씨는 "오바마 대통령의 호소력 있는 연설이 훌륭했다"며 "외대 동문으로서 오바마 대통령 연설이라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돼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혜지 기자 82hedy@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ww.hufs.ac.kr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

##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대학

"Come to this great university, where a new generation is taking its place in the world ... This school has one of the world's finest foreign language programs ... This school has produced leaders - public servants, diplomats, businesspeople - who've helped propel the modern miracle that is Korea."

- U.S. President BARACK OBAMA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         |                           |                        |           |                        |                        |
|---------|---------------------------|------------------------|-----------|------------------------|------------------------|
| 일반대학원   | [특별] 4.09(월) ~ 4.13(금)    | [일반] 5.14(월) ~ 5.18(금) | 정치행정전문대학원 | [특별] 4.23(월) ~ 4.27(금) | [일반] 5.21(월) ~ 5.25(금) |
| 국제지역대학원 | [특별] 4.02(월) ~ 4.06(금)    | [일반] 5.07(월) ~ 5.11(금) | 교육대학원     | [특별] 5.07(월) ~ 5.11(금) |                        |
| 통번역대학원  | [박사 과정] 5.14(월) ~ 5.18(금) |                        | TESOL대학원  | [특별] 4.23(월) ~ 4.27(금) |                        |
| 경영대학원   | [특별] 4.30(월) ~ 5.11(금)    | [일반] 6.04(월) ~ 6.15(금) |           |                        |                        |

\*모집일정은 대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중앙일보 대학평가 3년 연속 국제화부문 1위  
조선일보 대학평가 2년 연속 국제화부문 1위  
79개국 436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협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 “여기는 미네르바 홀, 뜨거운 연설의 현장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연설장 스케치



▲ 오바마 대통령이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떠났지만 학생들은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연설이 끝난 후에도 쉽게 홀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 기자들이 타닥타닥 자판 두드리는 소리와 청중들의 콩닥콩닥 심장소리가 홀 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기로 한 곳은 서울배운터 미네르바 콤플렉스. 오늘 연설장에 초대 받은 300여개의 내·외신 중 하나로서, 기자는 아침 일찍 출근해 노트북과 카메라 등의 장비를 갖추고 외대학보사 프레스 카드를 목에 걸었다. 학보사를 나서는 길, 약간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기자의 수행인사로 따라 붙었다. 지금부터 그 역사적인 아침의 다채로웠던 풍경을 전한다.

편집자주

오전 아홉시 경, 미네르바 콤플렉스로 향하는 길. 입장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모인 학생들이 도서관까지 길게 줄지어 서있었다. 행사 초대권을 받지 못한 학생들 중에는 혹시 남는자리가 있을까 하는 기대에 행사장 주위를 맴돌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 중 한명이었던 조은영(서양어·프랑스어 10) 양은 “주미대사관과 백악관에서 직접 행사 참가학생들을 뽑았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 기준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하다”며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이 기회가 아쉬워 미처 채워지지 못한 자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발을 동동거리며 말했다.

줄 서 있던 학생들은 개인 소지품 검사와 신원확인 등의 철저한 보안 검사를 거쳐 오전 여덟 시 경부터 입장을 시작했다. 언론사를 위한 출입구와 통행로는 학생, 내·외빈의 동선과 분리돼 자리하고 있었다. 기자 역시 공항 검색대 수준의 높은 보안 검사를 통과한 후 홀 안으로 안내를 받았다. 행사가 준비된 미네르바 홀에 들어서자 무대 중앙 ‘한국의국어대학교’ 금장 로고와 그 밑으로 태극기와 성조기가 화려하게 교차배열 돼 있는 연단이 눈에 띄었다. 연단 바로 아래 좌석에는 △성김 주한 미국대사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최영진 주미 한국대사 △정몽준 국회의원 등 150여명의 교내외贵宾들을 위한 자리가 위치했다.

홀 중앙에는 강연 연단과 비슷한 높이의 연단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증폭하기 위한 카메라 기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 날 오바마 대통령의 강연이 △KBS1TV △미국 ABC방송 △백악관 인터넷 TV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기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홀을 압도하고 있는 수백대의 카메라들 뒤로는 벌써부터 바쁘게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는 세계 각국 외신 기자들과 국내 신문 기자들을 볼 수 있었다. 카메라와 노트북 외부에는 △로이터 통신 △일본 아사히 TV △알자지라 방송

을 비롯해 국내 △MBC △KBS △SBS △연합뉴스 등의 로고가 붙어 있었다. 프레스 라인에 있던 백악관 대변인 토미 비터(Tommy Vietor)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학교 방문과 관련해 이 곳 한국의대차세대 리더들의 뜨거운 관심이 놀랍다”고 웃으며 말했다.

홀 안에 입장한 우리대학 700여명의 재학생들은 연단 우측과 프레스 라인 뒤쪽으로 나뉘어 자리했다.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서 피곤했을 텐데도 학생들은 긴 대기시간 동안 연설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모두가 긴장과 설렘 속에서 연단 위 그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지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관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내·외빈과 학생들의 뜨거운 환영에 미소로 화답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운을 뚫었다. “감사합니다” 서툰지만 정확한 발음의 한국어에 학생들의 환성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라는 연설의 주제에 맞게 미국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활약을 제시하며 그의 이야기는 시작됐다. 그는 최초의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인 성김 대사와 얼마 전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된 김용 님 트러스 총장을 예로 제시했다.

또한, 미투데이와 카카오톡 등의 소셜 미디어를 예로 들며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국경을 초월한 소통이 이룩한 한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 목적이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였던 만큼, 핵무기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이 연설의 큰 주제 중 하나였다. 더불어 북한에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란에는 평화적인 핵에너지 개발을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21세기 리더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한국말로 역설했다. “같이 갑시다!” 이로서 그는 30여 분간의 연설을 끝맺

었고 연단을 내려와서는贵宾들과 악수를 나눴다. 자연스럽게 홀 앞쪽에 자리했던 학생들에게도 악수할 기회가 주어졌고, 평소 농구를 즐긴다고 알려진 오바마 대통령에게 농구 한 개임을 제안하며 너스레를 떠는 남학생도 있었다. 홀 안의 모든 청중들은 그가 연설장을 떠나는 순간까지 박수와 환호를 보냈으며 끝없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로 그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랬다.

오바마 대통령은 떠났지만 학생들은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연설이 끝난 후에도 쉽게 홀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홀 안에 있었던 강민지(사범·영교 12) 양에게 연설이 어땠냐고 물었다. 그녀는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 미국 대통령의 강연을 계기로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 더 자랑스러워 졌다”며 “그의 연설 중에서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The future is what we make up)’이라고 말했던 부분이 가장 인상 깊다”라고 홀소 편 얼굴로 말했다. 한편, 박지현(서양어·프랑스어 10) 양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외면적으로나 테크닉면에서도 사람을 완전히 매료시킨다”고 했으며 다만 “한국의 교육, 대학생에 관한 언급과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연설장을 나오며 오바마 대통령과 악수했으니 당분간은 손을 씻지 않겠다고 재잘거리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미네르바 콤플렉스 밖에서는 외신 기자들이 학내 곳곳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고 그 뒤로는 “Come to Hufs, Meet the world”라고 적힌 우리 학교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안지혜 기자  
84ladypress@hufs.ac.kr

## 글로벌 리더를 위한 필독서!

외대출판부가 전하는  
영어실력 향상 노하우!

외대를 만나면  
시대가 보인다



〈박철 총장 인터뷰〉

# “애프터(After) 오바마... 세계 속 대학으로 우뚝 설 전환점 될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하 오바마 대통령)의 특별 강연 이후, 외부에는 우리학교가 강연 장소로 선정된 이유로 수많은 추측들을 내 놓았다. 여러 가지 소문들을 뒤로한 채, 강연 다음날 우리학교 박철 총장을 만나 우리학교 선정 이유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와 앞으로 우리학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 우리학교 총장으로서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의 소감이 남다르시겠습니까.

소감은 지금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학생, 교수 그리고 총장으로서 거의 평생을 모교와 함께 했는데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일은 정말 몇 년, 몇 십 년 이어질 학교의 경사입니다. 연설에서 “This great university”라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 세대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학교를 선택한 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우리학교가 하고 있는 여러가지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모의유엔총회, 또 최근에 한 대학생 모의 핵안보정상회의 등 이런 활동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우리학교가 선택된 건 로비가 아니라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글로벌 마인드와 여러 요소를 고려해 내

린 결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스페인어를 멋지게 구사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이 우리학교로 강연 장소를 결정한 확고한 이유라곤 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60년 동안 닦아온 나름대로의 노력이 오바마 대통령을 우리 대학으로 모시고 올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타이밍이 좋은 건 시기적절하게 작년에 미네르바 콤플렉스를 완공해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갖게 돼 이번 연설이 성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 오바마 대통령이 특강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우리학교가 배출한 인재들이 오늘날 ‘글로벌 한국’을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많은 공무원과 외교관, 기업인을 배출해서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한 대학”, “한국의 기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 많은 지도자들이 대학에서 배

출했다”고 명확히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또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과정에서 외국어가 중요한 건 사실이죠. 21세기에 오늘과 같이 많은 국가정상들이 모여 외교를 할 때 역시 중요한 건 외국어와 외국학 지식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 외대인의 역할이 있었고 미래에도 중요하다고 볼 때, ‘우리학교 선택은 탁월했고 매우 신중하고 매우 지혜롭게 선택된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이 특강에서 ‘핵 안보’와 ‘평화적 통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은 가장 빈곤한 나라에서 오늘날 가장 역동적인 나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한국의 기적을 만드는데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해온 것에 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의 봉사자로서 더 훌륭한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평화를 위해서, 또 세계의 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외대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세계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외대인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사진: 오대기 기자

## 앞으로 우리학교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와 내년 동안에 우리가 건설을 할 수 있는 기반과 플랜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시아시피 외국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송도캠퍼스는 앞으로 우리의 국제 허브입니다. 좀 더 많은 외국인들이 송도캠퍼스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공부하고 또 우리 학생도 때에 따라 거기에서 한 학기 유학 아닌 유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외형적으로 결코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실적인 커리큘럼에서 저의 희망은 우리가 재원을 더 많이 조달해서 모든 학생들이 한 학기 정도씩은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특별하기 위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외대생은 어느 과나 영어를 잘한다’와 더불어 ‘외국어 하나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트레이드마크로 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필지 아니면 그 미래의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학년은 과에 관계없이 영어와

외국어 교양 과정을 하고 2학년부터 반드시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올 수 있도록 해서 차별화를 하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방법은 역시 실력입니다. 1학년 과정에서 철저한 외국어교육을 한번 해보자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연설문 서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야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과제를 더 안은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번 왔다 갔다고 우리대학의 명성이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3월 26일, 오바마 대통령 강연을 기점으로 우리학교 역사를 ‘Before 오바마’ 시대와 ‘After 오바마’ 시대로 나눠봅니다. ‘After 오바마’ 시대를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어보자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학교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유진 기자 82yujin@hufs.ac.kr

외대를 만나면  
세상이 달라진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외국어대학교 방문은 11만 동문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I know that this school has one of the world's finest foreign language programs ... Come to this great university, where a new generation is taking its place in the world ...”  
U.S. President Barack Obama

“세계평화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앞으로 ‘HUFs Doctrine’이 되어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장 권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LUMNI ASSOCIATION

2012. 3. 26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콤플렉스 오디토리움

## 우리학교 - 미국 40여개 대학 활발한 교류

최근 2년 새 16개 교류대학 늘어... 미국 학생 유치는 ‘아직’

우리학교는 개교 이래 미국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국제화 된 교육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였다.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우리학교는 미국 주요 대학 40개 및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등 기관 4개와 교류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 대학 교류 협정은 1982년 몬테레이국제대학교, UC버클리대학교 등을 시작으로 △2009년 3개 △2010년 6개 △2011년 10개 대학과 추가로 맺어 우리학교 학생이 교류할 수 있는 대학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에는 뉴욕주립대 스톤브룩(SUNY Stony brook)과 2+2복수학위 MOU를 체결해 우리학교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 미국 대학으로 과전되는 학생 수도 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

교환학생 48명 △과전학생 520명 △복수학위생 39명이 총 54개의 미국 대학에서 수학했다. 그러나 전체 607명의 학생 중 아칸소주립대, 뉴욕주립대 알바니에 각각 97명, 92명이 과전되는 등 특정 대학에 학생이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미국에서 우리학교로 오는 교환학생의 수가 1년에 10명 미만이라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글로벌 원스톱서비스센터 권윤기 과장은 “지난해 10월에 가입한 북미고등교육컨소시엄(CONAHEC)을 통해 다자간 학생 교환이 가능해져 국제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학생 유치를 위해 원어 강의의 양과 질을 높이고 한국학을 배울 수 있는 강좌를 확충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유나 기자 84yoonah@hufs.ac.kr

### 각국 정상 우리학교 방문 현황

| 명예정치학박사 | 이름                     | 직책          | 방문일자       |
|---------|------------------------|-------------|------------|
| 명예정치학박사 | 미하일 고르바초프              | 구소련 대통령     | 2001.11.16 |
| 명예정치학박사 | 피렌츠 주르차니               | 헝가리공화국총리    | 2005.3.9   |
| 명예정치학박사 | 조셉 카빌라                 |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 2005.3.16  |
| 명예정치학박사 | 미쿨라쉬 주린다               | 슬로바키아 총리    | 2005.05.27 |
| 명예정치학박사 | 프라비안베세스쿠               | 루마니아 대통령    | 2005.10.19 |
| 명예정치학박사 | 레오넬페르난데스               |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 2006.06.30 |
| 명예정치학박사 | 레흐카친스키                 | 폴란드공화국 대통령  | 2008.12.6  |
| 명예정치학박사 | 게오르기 파르바노프             | 불가리아 대통령    | 2009.10.27 |
| 명예정치학박사 | 아둘라 굴                  | 터키 공화국 대통령  | 2010.06.15 |
| 명예정치학박사 | 투르키알-파이살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 사우디 아라비아 왕자 | 2011.10.13 |
| 명예동문    | 버락 오바마                 | 미국 대통령      | 2012.3.26  |
| 명예동문    | 슈미트 팔                  | 헝가리 대통령     | 2012.3.29  |

기고글



이현승  
영어통번역학부 교수

지난 달 26일(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학교를 방문해 학교 전체가 흥분에 들뜬다. 과거에는 안전문제로 인해 미국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일정을 제외하고는 미군부대에서 하는 연설이 고작이었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학에서 강연한 일은 처음이었다. 한국 언론에서는 왜 우리학교가 선택됐을까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다. 아마도 우리학교의 이미지를 높이 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학교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과 외대의 역할

다’라는 표어가 말해 주듯이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 교육의 중심을 둔다.이 목표는 시대의 변화에 잘 부응하기에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일전에 어느 고등학교 진학지도교사가 쓴 ‘세계화 시대에 발전성이 기대되는 대학으로 한국 외대를 적극 추천한다’는 요지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유망주를 추천하는 것과 유사하게 들린다.

‘세계화’는 전 세계인의 화두이다. 외국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다는 미국인들로조차도 근래에 외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거나 대학시절

의 일부를 외국에서 지내는 교환학생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미국이 충격을 받았을 때 이슬람 지역을 아는 전문가가 없음을 통감하고 미국정부는 아랍어 교육을 강화하려 했다. 그리고 근래에는 중남미와 중국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스페인어와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늘고있다. 특히 미국인에게 ‘세계화’는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정보화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 시장이 점차 통합되면서 미국의 근로자들은 해외의 근로자들과의 경쟁을 항시 의식해야 한다. 미국의 기업은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다국

적 기업이 됐고 미국의 생산기반은 개발도상국으로 대부분 이전됐다. 결국 미국인은 저임금의 개발도상국 근로자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기술 수준을 높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선도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세계의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또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지역의 언어와 사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사업 역량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미국의 선례를 뒤쫓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전문가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오바마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학교가 과연 세계화의 이미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볼게 된다. 세계적인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능력은 언어 구사력이다.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언어 구사력은 과거보다 더 중요하다. 또한 언어권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면 그 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다. 우리 대학은 과연 지역사정에 밝고 지역 언어를 사용하여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가? 주식시장에서 미래 유망주를 추천하는 사람들은 ‘비록 현재는 보잘 것 없지만 앞으로 유망해질 것이다’라는 낱말로 설득한다. 실체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이미지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글로벌 인재육성에 더 힘써야 할 것이다.

기고글



이상한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2년 3월 26일(월)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우리학교에서 연설을 해 대내외적 관심을 받았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학교 명예등용이 패 “한국외대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며 학교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그는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된 성 김 대사와 최근 세계은행 총재로 임명된 김용 다투머스대 총장을 언급하며 한국

## 오바마 대통령 연설이 우리대학에 남긴 것

계 미국인에 대해 애정을 부각시켰다. 우리가 그 이전 미국 대통령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그가 살아온 인생 궤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으로서 그는 대통령 당선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청년과 노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흑인, 백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와 아메리카 원주민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것이다”라고 외치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해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일컬어졌다. 그런 오바마 대통령이 미네르바 홀에서 핵무기 감축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역설했다. 그는 미국이 필요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안보를 보장하면서도 핵무기를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의 선두주자인 한국이 평화적으로 원자력 사용을 이끌어갈 것을 언급해 핵과 원자력이 나타내는 이중적 기능을 지적했다. 나아가 북한에 대해서도 단호한 메시지를 보여줬다. 그는 “북한은

더는 도발에 보상하지 않는 것도 알아야 한다”며 선택이 북한에 있음을 강변했다. 또 DMZ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남북한을 대비시켜 전후 다른 선택이 오늘날 남북한 간 격차를 가져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로 폐쇄적인 나라에서 안보와 번영의 지도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지목하며 한-미 동반자 관계를 재차 강조하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어떤 시련

이 있든 우리는 함께 할 것이고 같이 갈 것입니다”라는 말과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한 점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드러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핵안보 정상회의에 맞추어 전 세계적인 핵문제에 대한 그의 해법과 북한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며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HUFS Doctine’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혹자는 그의 한국 대학 방문이 올 가을 미국 대선 승리를 위한 홍보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해석이 어떨든 오바마 대통령은 △진리 △평화 △창조를 교훈으로 하고 평화의 메신저인 비둘기를 상징으로 해온 우리 대학에서 평화를 말했다.

기고글



김봉철  
국제학부 교수

1. Nuclear issue? New clear issue!  
핵문제는 한국의 문제다. 한반도에는 핵기술을 국민생활과 과학에 응용하는 한국과, 생존을 위하여 핵무기의 위협을 이용하려는 북한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공존한다. 한반도의 바로 이웃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 핵기술과 무기로 경쟁하고 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로 핵기술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알린 주인공이 돼버렸다. 그러나 핵문제는 한반도만의 논의대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결과와 평가

2. Proposals for the Future!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목적은 ‘핵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의 논의들을 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또는 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각된 ‘방사능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다. 정치적 노력이나 의지만을 강조하던 의견들과 달리 IT기술을 이용하자는 등 지난 회의보다 구체적이고 진지했다. 한편, 핵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연계’가 제시되기도 했다. 이번 회의로 핵안보 논의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문제는 △환경 △문화 △범 △개발 △무역 등 더욱 많은 요소들과 융합돼 논의돼야만 하며,

미래를 위한 제안들은 꾸준히 환영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는 국제사회에 핵관련 논의에 디딤돌을 놓은 중요한 과정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3. Come to World, in the HUFS!  
핵안보정상회의는 코엑스에서만 개최된 것이 아니다. △많은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외교관 △학자 △실무자들이 한국의 다양한 장소에서 의견을 나눴다. 각종 세미나와 방문 및 연설이 있었고 그것은 한국과 서울이 국제사회의 중심무대임을 의미한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미국의 오바마 대

통령은 외대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 세계의 눈과 귀를 ‘한국 안의 세계’를 자부해온 외대로 모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적 한국’을 주도해온 외대의 ‘글로벌 전략’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문제들에 관해 외대 젊은이들과 ‘같이 가자’는 제안을 했다. 연설의 내용과 외대의 상징성이 ‘국제사회’의 ‘공공노력’을 강조한 셈이다.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진행된 논의들은 앞으로 다양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행사가 국제사회에 한국과 외대의 역할을 깊게 각인시켰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리더를 배출해야 할 한국과 외대는 글로벌 전략의 새로운 발전을 고민해야만 한다.

# FILA bubblerun 2.0

# NITE ARMOR

## 힐라 나이트 아머만의 PROTECTIVE TECHNOLOGY

**3M 소재의 반사종괴로 어둠에서도 리닝을 안전하게**

**AEROCAP**  
발등까지 보호되는 에어백으로 보이지 않는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duflex**  
이중경도의 EVA 미드솔을 통한 최상의 쿠셔링으로 나이트 리닝을 더욱 편안하게

**CELLskinFIT.ns**  
EVA FOAM 소재를 통한 최상의 내구성 유연성 그리고 통기성으로 더욱 쾌적하게

# 오바마 대통령을 빛낸 조연들

지난 달 26일(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하 오바마 대통령)이 미네르바 홀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진행했다. △우리나라 경호처 △미국 대사관 △미국 경호처 뿐 아니라 동대문구 경찰까지 동원돼 이 날의 안전을 책임졌으며 250여개의 언론에서 취재를 위해 미네르바 홀을 찾았다. 이 날의 강연은 각종 중앙 일간지에 보도됐고 강연 현장은 한국방송(KBS)에서 생중계되기도 할 만큼 우리 대학의 55년 역사에 기록될 큰 행사였다.

하지만 모든 일은 그냥 이뤄지지 않는 법. 백조가 우아하게 춤을 추기 위해 물 아래에서 부지런히 발을 놀리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번 행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노력을 기울인 실무진들이 있다. 백조의 발이 돼 끊임없이 움직인 장태업 대외협력처장과 채명수 행정지원처장을 찾았다.



▶잔디광장의 분수대 앞에서 포즈를 취한 장태업 대외협력처장.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도중에 너무 바빠서 분수대를 가로질러 가다가 물 때문에 미끄러진 일이 있었다고 한다. 웃이며 신발이며 흠뻑 젖었지만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 젖은 채로 일을 계속했다고...



인터뷰 약속을 잡기 위한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장태업 대외협력처장은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다”며 부답스러워 하는 듯 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대외협력처장실을 찾았을 때에도 조금은 무뎠던 모습으로 기자를 반겼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 동안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학교를 돌아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2월 중순이었다고 한다. 비서실 직원들과 함께 미국 대사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을 맞이했고 그들로부터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일정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 있다는 것만 전해 들었다. 이를 위해 여러 후보대학들을 정해 놓고 장소를 찾는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때는 로버릭이 강한 다른 대학들과 함께 후보에 올라있어서 우리 대학이 선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시 접촉이 온 것은 그로부터 2주가 지난 후였다. 우리 학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둘러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미국 대사관 측은 두 번째 방문에서 미네르바 콤플렉스를 비롯한 학교 구성구역을 돌아보고 떠났다. 백악관 관계팀의 책임자 던컨은 “학교의 첫인상이 어떠냐”고 묻는 그의 질문에 “Perfect!”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 후 3월 중순 경에 미국 대사관에서 학교 측으로 ‘우리 학교가 선정됐다’는 연락이 왔다.

“우리 학교가 오바마 대통령의 강연 장소로 선택된 것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그가 말했다. 평소 오바마 대통령은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한다. 때문에 45개의 언어를 가르치는 우리 학교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또한 “미국 측에 ‘왜 우리 학교를 선택했느냐’고 물었을 때 국제화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며 여러 지표에 우리 학교가 국제화에 있어서 우수한 학교라고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참조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번 아니라 “연설을 할 때 재밌는 얘기에 함께 웃고 박수도 쳐야 의미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영어에 능통한 우리 학생들의 청중 수준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 학교의 구조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강연이 이뤄진 미네르바 홀은 지하 강당이라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연설하기에

위험하지도 않고 최신식 시설을 자랑한다는 판단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우리 학교 출신의 외교관이나 미국 대사관, 백악관 직원이 많은 것도 한몫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오바마 대통령 맞이’가 시작됐다. 매일 우리 학교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대사관, 백악관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백악관 측의 선발대는 계속 우리 학교에 상주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의사소통의 창구를 단일화 해달라는 요구에 그는 백악관과의 의사소통을 전담했고 △행정지원처에서 시설 △홍보실에서 언론 △학생복지처에서 청중초대와 관련한 실무를 분담했다고 한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안전문제나 시설, 외부 언론에 대한 보안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학생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까지 논의됐다.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동선 △무대 구성 △통신 장비 △세세한 시설물 관리 등이 정해졌다.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해 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라며 그가 웃었다.

여러 단계의 회의를 거쳐 청중들도 결정됐다. 학교와 백악관의 입장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강연이니만큼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자리를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정해야 하는 손님들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강연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한다. 미디어가 주목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왼쪽 측면의 자리도 학생들에게 배정했다. 하지만 강연의 특성 상 미네르바 홀의 상당 부분이 언론사에게 배정돼 처음 계획했던 인원은 행사 당일 실제로 입장한 인원보다 더 적었다고 한다. 그래서 “뒀의 계단식 의자도 활용하고 백악관에서는 기존의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서 등받이가 없는 더 작은 의자로 교체했다”며 “의자가 불편했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학생들을 입장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대해서 학교 내부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안전상의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연설 자체도 간결한 분량이었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연설에 “Come to this great university”와 같이 우리 학교가 언급된 부분이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학에서 강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계기”라고 그가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앞으로의 학교 홍보 및 국제교류의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던 바로 그 날, 즉각적인 학교 홍보 효과를 경험했다고 한다. 26일(월) 오후, 영국 7개 명문 대학의 총장들을 영국 대사관에 초청해 한국의 교육 네트워크를 홍보하는 행사가 있었다. “그 행사에 참가해서 우리 학교에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강연을 하러 왔었다고 하니 그 전까지는 심드렁하던 영국대학 총장들이 깜짝 놀라며 ‘누구라고요?’하고 되물더라고요. 영국의 명문대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

## “앞으로의 학교홍보 및 국제교류에 큰 도움”

면서 우리 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환학생이 몇 명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됐지요. 오바마 대통령 강연의 홍보 효과가 이렇게 발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국제교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던 영국의 한 대학은 오바마 대통령 연설 이후에 대학 간 교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연락이 왔고, 카자흐스탄의 경제경영대학에서는 학생 20명을 교류학생으로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연에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백악관 측에서 대통령의 강연에는 원래 질의응답이 없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순서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또 “더 많은 학교의 구성원들이 직접 강연에 참석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많

은 학생들과 교수진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히며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을 위한 강연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나 교수진도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개인적으로도 이번 행사를 준비한 것은 큰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이번 해 대외협력처장직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공부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연임을 하게 됐고 그 와중에 이런 행사를 맡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하나라도 빈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매 순간을 신경써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담배를 끊었었는데 이번 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피우게 될 정도였죠.”

하지만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나니 이 모든 과정들이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으며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과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서 기쁘다”고 전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3월, 행정지원처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을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대외협력처가 백악관과의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을 했다면 행정지원처는 학교 내부의 시설과 정리, 물자 지원에 집중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직원회의가 열렸고 채명수 행정지원처장은 거의 밖에서 생활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는 “학교를 돌아보니 재정이 필요한 곳들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추운 날씨에 나무도 우거지지 않은 황량한 캠퍼스 초입에 꽃밭을 만드는 일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늘 신경 쓰다 보니 꽃밭을 조성해 우리 학교의 이니셜을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며 “행사가 열리는 미네르바 콤플렉스는 얼마나 닦



# 우리학교 실무진의 뒷이야기



▲빠른 일처리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에 대한 배려도 돋보였다. 아침 일찍 취재하러 온 외부 언론의 기자들에게 우리학교 로고가 그려진 봉지에 포장한 빵을 나눠주는 일도 그 중 하나였다. “외신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한마디로 ‘히트’ 쳤다고 할 수 있죠. 연단으로 입장하는 통로에도 환영메시지를 붙일 만큼 세세한 부분에도 신경썼다며 채명수 행정지원처장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였다.

는지 이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안봐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2월 중순 후보 학교 물망에 오르고 행사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종 선택된 다음도 만만치 않았다. 단 한 번의 오바마 대통령 방문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대사관과 백악관에서 우리학교를 찾았다. 요구사항도 이어졌다. “밤 11시쯤 학교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밝이 보이는 창이 있는데 그 창을 가려달라’는 요청이었죠. 대통령의 동선이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일을 시작해 한시간만에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식 일처리였다. 이렇듯 완벽하고 신속한 일처리에 미국 대사관은 “감동받았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다음 회의 전까지만 끝내달라고 부탁했는데 부탁한지 1시간 만에 일을 완벽히 처리하니 정말 놀랍다며 사진까지 찍어갔다”고 말하는 채 처장의 말투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학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학교 홍보였다. 특히 언론에 우리학교를 최대한 노출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미네르바 콤플렉스에 얼마나 많은 학교 로고 스티커들을 붙였는지 셀 수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와 카메라 앵글에 잡히는 배경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번갈아 놓여있었는데, 사실 그 곳에 우리학교 깃발도 있었으면 했죠. 하지만 백악관에서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국가 원수를 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일도 많더라”며 아쉬운 웃음을 보였다. 우리학교의 깃발은 없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미네르바 홀 연단에 올라 연설하는 모습은 전 세계 전파를 탔다. CNN, ABC 같은 해외 유명 방송사나 신문사, 인터넷 모두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주목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한국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대학 강연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강연 내용도 우리학교에 아주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집트 카이로 대학에서 연설할 당시에는 연설 초반에 대학 이름을 언급하기만 했었는데 이번 연설문에서는 우리학교의 이름이 많이 거론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만한 홍보효과가 있겠느냐”며 “이번 해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는 사실상 다 했다고 본다”고 의의를 뒀다. 또한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아주 큰 산 하나를 넘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큰 산을 넘었으니 다른 유명인사 초대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채 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연사들을 만나기가 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직원들 덕분”

같은외빈 대접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물론 돌이켜 보면 힘든 일도 많았다. 우선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 그렇겠지만, 행사를 총괄하는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행사는 월요일로 잡혀있는데 금요일 저녁까지 가장 기본적인 무대 설치조차 끝나지 못한 상태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동선이 미리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일처리가 느려지니 당연히 답답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백악관에서 미네르바 홀의 도면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행사직전에 모든 일들이 계획했던 대로 실행됐습니다.” 안전문제에도 학교가 애를 써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동선이 공개되지 않은 채 경호차를 포함한 의전 연습도 학교 안에서 진행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홍보 효과가 컸다고는 하

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연설을 듣는 학생들의 태도가 수준 이하였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그는 상황 상 용인될 수 있던 행동이었다고 일축했다. “심지어는 나도 허벅지를 꼬집으며 졸음을 참았는데, 새벽 4시부터 기다린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는 말했다. “질서정연한 모습은 학교가 학생들을 통제했다면 연출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요즘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학교뿐 아니라 백악관도 동의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다시 한 번 숨은 곳에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할 전했다. “행사는 오전에 모두 마무리됐지만 후에도 뒷정리와 청소 등 할 일이 많았다”며 “자기일처럼 나서준 모든 직원들이 있었기에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방문은 짧았지만 그 효과는 벌써 확인 할 수 있었다. “어제(28일) 태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우리학교를 방문했다”며 “이렇게 찾은 관광객들과 학생들을 위해 VIP실이나 미네르바 홀 일부를 기념관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을 그만두더라도 이 일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며 “밤낮 없이 회의하고 전화도 많이 한 까닭에 우리끼리 농담으로 ‘제발 전화 좀 그만하라’고 말하기도 할 정도였지만 우리학교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 보람 있었다”고 전했다.

학교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발놀림이 성공적인 오바마 대통령 강연이라는 아름다운 백조를 물 위로 띄

웠다. 수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노력을 대표해서 두 처장의 인터뷰를 담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 행사를 발판삼아 한 마리의 백조처럼 활활 날아가는 우리 학교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조인우 기자 82pressman@hufs.ac.kr  
이은수 기자 84euneun@hufs.ac.kr



# Remarks of President Barack Obama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Republic of Korea  
March 26, 2012



Good morning. To President Park, faculty, staff and students, thank you for this very warm welcome. It is a great honor to be here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thank Dr. Park for, a few moments ago, making me an honorary alum. This school has one of the world's finest foreign language programs. Your English is a lot better than my Korean. So let me just say, kamsa hamnida.

This is my third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as President. I have now been to Seoul more times than to any other capital. This reflects the extraordinary bonds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our commitment to each other. I'm pleased that we're joined by so many leaders, Koreans and Americans, who help keep us free and strong and prosperous every day. That includes our first Korean-Americ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Ambassador Sung Kim.

I've seen the deep connections between our peoples in my own life, among friends and colleagues. I've seen it so many patriotic Korean Americans, including a man born in this city of Seoul, who came to America and has dedicated his life to lifting up the poor and sick of the world. And last week I was proud to nominate him to lead the World Bank Dr. Jim Yong Kim.

I've seen our bonds in our men and women in uniform, like the American and Korean troops I visited yesterday along the DMZ Freedom's Frontier. We salute their service. We honor all those who have given their lives in our defense, including the 46 brave souls who perished aboard the Cheonan two years ago today. And in their memory we reaffirm the enduring promise at the core of our alliance we stand together, and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defense and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never waver.

And I see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in all of you. For decades, this school has produced lead-

ers public servants, diplomats, businesspeople who've helped propel the modern miracle that is Korea. Transforming it from crushing poverty to one of the world's most dynamic economies; from authoritarianism to a thriving democracy; from a country focused inward to a leader for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is region and around the world a truly "Global Korea."

To all the students here today, this is the Korea your generation will inherit. And I believe there is no limit to what our two nations achieve together. For like your parents and grandparents before you, you know that the future is what we make it. And you know that in our digital age, we can connect and innovate across borders like never before with your smart phones and Twitter and Me2Day and Kakao Talk It's no wonder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caught the Korean Wave, Hallyu.

Or consider this. In advance of my visit, our embassy invited Koreans to send us your questions using social media. They called it Her "Ask President Obama." One of them asked and this is true: "Have you, yourself, ever posted a supportive opinion on a website under a disguised name, pretending you are one of the supporters of President Obama?" The truth is, I have not. But who knows, maybe my daughters have.

Our shared future and the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meet shared challenges together is what brings me to Seoul. Over the next two days, under President Lee's leadership, we'll move ahead with the urgent work of preventing nuclear terrorism by securing the world's nuclear materials. This is an important part of the broader, comprehensive agenda that I want to talk with you about today our vision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Three years ago, I travelled to Prague and I declared America's commitment to stopping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to seeking a world without them. I said that I knew this goal would not be reached quickly, perhaps not in my lifetime. But I knew we had to begin, with concrete steps. And in your generation, I see the spirit we need in this endeavor that optimism that beats in the hearts of so many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It's that refusal to accept the world as it is, the imagination to see the world as it ought to be, and the courage to turn vision into reality. So today, with you, I want to take stock of our journey and chart our next steps.

Here in Seoul, more than 50 nations will mark our progress toward the goal we set at the summit I hosted two years ago in Washington securing the world's vulnerable nuclear materials in four years so they never fall into the hands of terrorists. Since then,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ve boosted security at nuclear facilities. South Korea Japan, Pakistan and others are building new centers to improve nuclear security and training. Nations like Kazakhstan have moved nuclear materials to more secure locations Mexico, and just yesterday Ukraine, have joined the ranks of nations that have removed all the highly enriched uranium from their territory. All told, thousands of pounds of nuclear material have been removed from sites around the world—deadly material that is now secure and can never be used against a city like Seoul.

We're using every tool at our disposal to break up black markets. Countries like Georgia and Moldova have seized highly enriched uranium from smugglers. Countries like Jordan are building their own counter-smuggling teams, and we're tying them together in a global network of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Nearly 20 nations have ratified the treaties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s that are at the center of our efforts. And I'd add this with the death of Osama bin Laden and the major blows we've struck against al Qaeda, a terrorist organization

that has actively sought nuclear weapons is now on the path to defeat.

In sho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de it harder than ever for terrorists to acquire nuclear materials. That's made all our nations safer. But we're under no illusions. We know that nuclear material—enough for many weapons is still being stored without adequate protection. We know that terrorists and criminal gangs are still trying to get their hands on it, as well as the radioactive material for a dirty bomb. And we know that just the smallest amount of plutonium—about the size of an apple—could kill hundreds of thousands and spark a global crisis. The danger of nuclear terrorism remains one of the greatest threats to global security.

So, here in Seoul, we need to keep at it. I believe we will. We're expecting dozens of nations to announce that they've fulfilled the promises they made two years ago. And we're expecting more commitments—tangible, concrete actions to secure nuclear materials and, in some cases, remove them completely. This is the serious and sustained global effort we need. This is an example of more nations bearing the responsibility and the costs of meeting global challenges. This is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work in the 21st century.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do our part—securing our own materials, and helping others protect theirs. We're moving forward with Russia to eliminate enough plutonium for about 17,000 nuclear weapons and turn it into electricity. I can announce today a new agreement by the United States and several European partners toward sustaining the supply of medical isotopes to treat cancer and heart disease without the use of highly enriched uranium. And we'll work with industry, hospitals and research center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to recover thousands of unneeded radiological materials so they never do us harm.

American leadership has been essential to progress in a second area—taking concrete steps toward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s a party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this is our obligation, and it's one I take very seriously. But I believe the United States has a unique responsibility to act—indeed, a moral obligation. I say this as President of the only nation ever to use nuclear weapons. I say it as a Commander in Chief who knows that our nuclear codes are never far from my side. And I say it as a father, who wants my two young daughters to grow up in a world where everything they know and love can't be wiped out in a horrible instant.

Over the past three years, we've made important progress. With Russia, we're now reducing our arsenals under the New START Treaty—the most comprehensive arms control agreement in nearly two decades. And when we're done, we'll have cut American and Russian deployed nuclear warheads to their lowest levels since the 1950s.

안녕하십니까. 박철 총장님과 교·강사, 교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합니다. 한국의국어대학교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박철 총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게 명예 동문 자격을 수여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대의 외국어 교육 과정은 세계 최고로 손꼽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제 한국어 실력보다 월등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제가 대통령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다른 어느 나라의 수도보다도 서울을 더 많이 방문할 셈입니다. 이는 한미 양국 간의 결속과 유대가 그만큼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한미 양국의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이토록 많이 참석해주신 것도 세계는 기쁜 일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최초로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하신 성 김(Sung Kim) 대사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한미 양국 국민들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친구들과 동료들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애국적인 한국계 미국인들을 통해 몸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곳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에 온 뒤로 전 세계의 빈민과 병자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친 분도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계은행 총재로 지명한 짐 옴 김(Jim Yong Kim) 박사님이 바로 그 분입니다.

양국의 제복입은 군인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유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자유의 최전선인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을 때 만난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에게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또한 한미 양국의 안보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을 기억합니다. 2년 전 오늘 산화한 46인의 친안함 용사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기리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의 요체에 해당하는, 변치 않는 한 가지 다짐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다짐 말입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 모두의 얼굴에서 한미 동맹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대는 수십년 동안 공무원, 외교관, 경제인 등의 리더들을 배출해왔고, 이들은 한국이라는 현대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근민국에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동적 경제 대국으로, 권위주의에서 활기찬 민주주의로, 내향적 국가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안보와 번영을 이끄는 리더로, 한 마디로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로 변모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학생들 세대가 물려받을 한국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미 양국이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들처럼 미래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는 스마트폰과 트위터, 미투데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국경을 초월한 대화와 혁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인류에 매료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방한에 앞서 주한미 대사관은 한국인들에게 저에게 할 질문을 소셜 미디어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물어보세요(Ask President Obama)”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벤트였습니다. 접수된 질문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상에 대통령이 아닌 척 다른 이름으로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까?” 진실로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제 딸들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서울에 온 것은 한미 양국의 공통된 미래를, 그리고 양국이 공통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전례 없는 기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들 간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전 세계 핵물질 방호(Secure)를 통한 핵 테러 예방이라는 시급한 과제에서 진척을 이룰 것입니다. 이 과제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더욱 광범하고 포괄적인 비전의 일부입니다. 그 비전은 바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3년 전 프라하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목표가 조속히 실현되는 것을 알고 어찌면 제 생애에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여정의 첫 걸음을 떼야 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첫 걸음으로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세대가 이 과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신 자세를 갖추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꿈틀거리는 낙관의 힘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거부하고, 바람직한 모습의 세상을 상상하며, 그 상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에서 우리가 지금껏 거둔 성과를 되돌아보고 다음 단계를 모색해보려 합니다.

오늘 서울에 모인 50여 개국 정상들은 2년 전 제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정상회의에서 설정한 목표, 즉 4년 만에 전 세계 핵물질의 방호를 통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핵물질이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에 우리가 얼마나 다가갔는지를 점검할 것입니다. 워싱턴서 개최된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핵 시설에 대한 방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국, 일본, 파키스탄 등은 핵 안보와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시설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은 핵물질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멕시코, 그리고 바로 어제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고농축 우라늄을 전량 제거한 모범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두 함께 수천 파운드의 핵물질을 수거하였습니다. 이 치명적 물질들은 이제 안전하게 방호되어 앞으로 절대 서울 같은 도시를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핵물질이 거래되는 암시장을 척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루지야, 몰도바 같은 나라들은 밀수업자들이 매매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압수했고, 요르단 등의 국가는 자체적으로 밀수 단속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각국의 단속 조직을 국제적인 정보·단속 네트워크에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20개국에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있는 조약 및 국제적 파트너십을 비준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을 비롯해 중대한 타격을 입힌 결과 핵무기를 손에 넣으려고 적극 시도했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조직이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국제사회가 테러리스트들의 핵물질 확보를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이 덕분에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더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환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핵무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양의 핵물질이 허술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과 범죄 조직들이 그런 핵물질과 ‘더러운 폭탄(Dirty Bomb, 방사성 물질 살포 장비)’을 제조하기 위한 방사성 물질을 노린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사과 한 개 크기의 플루토늄 만으로도 수십만 명을 죽이고 전지구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핵 테러는 여전히 세계 안보의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서울에서 우리의 과업을 계속 해야 하며, 또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정상회

의에서는 수십개국이 2년 전의 약속을 이행했음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물질의 방호 및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 제거를 위한 가지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더 많은 약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국제사회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전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들이 책임과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21세기의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자국의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많은 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협력하여 핵무기 1만7천 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발전 연료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 오늘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는, 암과 심장병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지속적 공급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유럽 수개국과 체결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외 기업, 병원, 연구소와 협력하여 수많은 불필요한 방사성 물질을 수거하여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를 막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도 미국의 리더십은 필수적

이었습니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이며, 저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은 행동에 나서야 할 책임, 사실 도덕적 의무라 할 수 있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 유일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핵무기 발사 암호를 항상 지니고 있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제 어린 두 딸이 자라나는 세상에서는 그 아이들이 알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끔찍하게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한 아버지로서 이러한 의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새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따라 핵무기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거의 20년 만에 체결된 가장 포괄적인 군축 협정입니다. 그리고 이 협정의 이행이 완료되면 미국과 러시아에 실전 배치된 핵탄두 수는 195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11면에 계속▶



As President, I changed our nuclear posture to reduce the number and role of nuclear weapons in ou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 made it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t develop new nuclear warheads. We will not pursue new military missions for nuclear weapons. We've narrowed the range of contingencies under which we would ever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At the same time, I've made it clear that so long as nuclear weapons exist, we'll work with our Congress to maintain a safe, secure and effective arsenal that guarantees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including South Korea and Japan.

My Administration's nuclear posture recognizes that the massive nuclear arsenal we inherited from the Cold War is poorly suited for today's threats, including nuclear terrorism. Last summer, I therefore directed my national security team to conduct a comprehensive study of our nuclear forces. That study is still underway.

But even as we have more work to do, we can already say with confidence that we have more nuclear weapons than we need. Even after New START, the United States will still have more than 1,500 deployed nuclear weapons, and some 5,000 warheads. I firmly believe that we can ensure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maintain a strong deterrent against any threat, and still pursue further reductions in our nuclear arsenal.

Going forward, we'll continue to seek discussions with Russia on a step we have never taken before—reducing not only strategic nuclear warheads, but also tactical weapons and warheads in reserve. I look forward to discussing this agenda with President Putin when we meet in May. Missile defense will be on the agenda, but I believe this should be an area of cooperation, not tension. I'm confident that, working together, we can continue to make progress and reduce our nuclear stockpiles. And we'll consult closely with our allies every step of the way because the security and defense of our allies, in Europe and Asia, is non-negotiable.

Here in Asia, we have urged China—with its growing nuclear arsenal—to join us in a dialogue on nuclear issues, and that offer remains open. More broadly, my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pursue ratification of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And after years of delay, it is time to find a path forward on a new treaty that verifiably ends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s for nuclear weapons—and ends it once and for all.

By working to meet our responsibilities as a nuclear power, we've made progress in a third area—strengthening the global regime that prevents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When I came into office, the cornerstone of the world's efforts—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was fraying. Iran had started spinning thousands of centrifuges. North Korea conducted another nuclear tes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largely divided on how to respond.

Over the past three years, we've reversed that dynamic. Working with others, we've enhanced the global partnerships that prevent proliferatio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s now conducting the strongest inspections ever. And we've upheld the basic bargain of the NPT: countries with nuclear weapons will move toward disarmament, countries without nuclear weapons will not acquire them, and all countries can have access to peaceful nuclear energy.

Because of these effor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ore united and nations that attempt to flout their obligations are more isolated. That includes North Korea. Here in Korea, I want to speak directly to the leadership in Pyongyang. The United States has no hostile intent toward

your country. We are committed to peace. And we are prepared to take steps to improve relations, which is why we have offered nutritional aid to North Korean mothers and children.

But by now it should be clear, your provocations and pursuit of nuclear weapons have not achieved the security you seek, they have undermined it. Instead of the dignity you desire, you are more isolated. Instead of earning the respect of the world, you have been met with strong sanctions. You can continue down the road you are on, but we know where that leads. It leads to more of the same—more broken dreams, more isolation and ever more distance between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the dignity and opportunity they deserve.

And know this—there will be no more rewards for provocations. Those days are over. This is the choice before you. This is the decision you must make. And today we say, Pyongyang, have the courage to pursue peace and give a better life to the North Korean people.

So too with Iran. Under the NPT, Iran has the right to peaceful nuclear energy. In fact, time and aga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s offered to help Iran develop nuclear energy peacefully. But time and again Iran has refused, taking instead the path of denial, deceit and deception. That is why Iran stands alone—as the only member of the NPT unable to convi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ts nuclear program is for peaceful purposes. That is why the world has imposed unprecedented sanctions, slowing Iran's nuclear progra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w poised to enter talks with Iran's leaders. Once again, there is the possibility of a diplomatic resolution that gives Iran access to peaceful nuclear energy while addressing the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day, I'll meet with the leaders of Russia and China as we work to achieve a resolution in which Iran fulfills its obligations.

There is time to solve this diplomatically, but time is short. Iran's leaders must understand that there is no escaping the choice before it. Iran must act with the seriousness and sense of urgency that this moment demands. Iran must meet its obligations. For in the global response to Iran and North Korea's intransigence, a new international norm is emerging. Treaties are binding. Rules will be enforced. And violations will have consequences. Because we refuse to consign ourselves to a future where more and more regimes possess the world's most deadly weapons.

This brings me to the final area where we've made progress—a renewed commitment to harnessing the power of the atom, not for war, but for peaceful purposes. After the tragedy at Fukushima, it was right that nations moved to improve the safety and security of nuclear facilities. We're doing so in the United States.

As we do, let's never forget the astonishing benefits that nuclear technology has brought to our lives. Nuclear technology helps make our food safe. It prevents disease in the developing world. It's the high-tech medicine that treats cancer and finds new cures. And, of course, it's the energy—the clean energy—that helps cut the carbon pollution that contributes to climate change. Here in South Korea, you know this. As a leader in nuclear energy, you've shown the progress and prosperity that can be achieved when nations embrace peaceful nuclear energy and reject the development of nuclear arms.

With rising oil prices and a warming climate, nuclear energy will only become more important. That's why, in the United States, we've restarted our nuclear industry as part of a com-



prehensive strategy to develop every energy source. We've supported the first new nuclear power plant in three decades. We're investing in innovative technologies so we can build the next generation of safe, clean nuclear power plants. And we're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scientists and engineers who are going to unlock new technologies to carry us forward.

One of the great challenges they'll face—that your generation will face—is the fuel cycle itself. We all know the problem: the very process that gives us nuclear energy can also put nations and terrorists within reach of nuclear weapons. But we simply can't go on accumulating huge amounts of the very material, like separated plutonium, that we're trying to keep away from terrorists.

That's why we're creating new fuel banks, to help countries realize the energy they seek without increasing the nuclear dangers we fear. And that's why I've called for a new framework for civil nuclear cooperation. We need an international commitment to unlocking the fuel cycle of the future. In the United States we're investing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fuel cycles so that dangerous materials can't be stolen or diverted. And today I urge nations to join us in seeking a future where we harness the awesome power of the atom to build and not destroy.

In this sense, we see how the efforts I've described today reinforce each other. When we enhance nuclear security, we're in a stronger position to harness safe, clean nuclear energy. When we develop new, safer approaches to nuclear energy, we reduce the risk of nuclear terrorism and proliferation. When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fulfill our responsibilities, it strengthens our ability to ensure that other nations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nd step by step we come closer to the security and peace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I know there are those who deride our vision, who say that ours is an impossible goal that will be forever out of reach. But to anyone who doubts that great progress is possible, I say come to Korea. Come to this country, which rose from the ashes of war, turning rubble into gleaming cities. Stand where I stood yesterday, along a border that is the world's clearest contrast between a country committed to progress and its people and one that starves its own citizens.

Come to this great university, where a new generation is taking its place in the world, creating opportunities that your parents and grandparents could only imagine. Come and see some of the courageous individuals who join us today—men and women, young and old, born in the North, but who left all they knew behind and risked their lives to find freedom and opportunity here in the South. In your life stories we see the truth—Koreans are one people. And if just given the chance, if given their freedom, Koreans in the North are capable of great progress, too.

Looking out across the DMZ yesterday, looking into your eyes today, I'm reminded of another country's experience that speaks to the change that's possible in our world. After a terrible war, a proud people was divided. Across a fortified border armies massed, ready for war. For decades, it was hard to imagine a different future. But the forces of history and the hopes of man could not be denied. And today, the people of Germany are whole again—united and free.

No two places follow the same path. But this much is true. The currents of history cannot be held back forever. The deep longing for freedom and dignity will not go away. So too on this divided peninsula. The day all Koreans yearn for will not come easily or without great sacrifice. But make no mistake, it will come. And when it does, change will unfold that once seemed impossible. Checkpoints will open. Watchtowers will stand empty. Families long separated will finally be reunited. The Korean people, at long last, will be whole and free.

Like our vision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our vision of a Korea that stands as one may not be reached quickly. But from this day until then, and all the days that follow, we take comfort in knowing that the security we seek, the peace we want, is closer at hand because of the great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because we stand for the dignity and freedom of all Koreans. And no matter the test, no matter the trial, we stand together, we work together, we go together. Katchi kashida!

Thank you very much.

대통령으로서 저는, 국내 핵무기의 수와 미국 국가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가 담당하는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핵태세를 변경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새로운 핵탄두를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군사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핵 공격 위협을 가해야 할 비상사태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핵무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미국의 안보와 한국, 일본을 포함한 우리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할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보유하기 위해 미 의회와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냉전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막대한 핵전력이 핵 테러를 포함해 오늘날 제기되는 위협에 대처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지난 여름 국가안보팀에게 우리의 핵전력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한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 전략무기감축협정 이행 후에도 미국은 1천 5백 개 이상의 실전 배치된 핵무기와 약 5천 개의 핵탄두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고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역지력을 유지하면서도 핵무기를 추가로 감축해 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략핵탄두뿐 아니라 전술 핵무기와 예비 핵탄두까지 감축한다는, 이전에는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방안을 놓고 러시아와 계속 대화할 것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5월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제(MD)도 의제에 오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양국간 서로 반목이 아닌, 협력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국이 협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양국의 핵무기 비축량을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때때로 우리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상의할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우리 동맹국들의 안보와 방위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곳 아시아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는 중국에게 핵 문제에 관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 큰 틀에서 우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비준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입니다. 많이 늦어졌지만 이제는 핵무기에 탑재할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완전히 종식할 새로운 조약으로 향하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 체제를 강화하는 데서도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 이 분야에서 국제 공조의 초석이었던 NPT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수 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었고, 북한은 또 한 차례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응책을 놓고 분열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이 추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핵 사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NPT의 기본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핵 보유국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향후에도 핵무기를 얻지 못하는 한편, 어느 나라든 평화적인 핵 에너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제 사회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고 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더욱 고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곳 대한민국에서 북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열망합니다.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아이들과 그 어머니들을 위한 영양 지원을 제안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도발과 핵무기 추구는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안보를 결코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북한의 안보에 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존엄을 원했지만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존중을 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강력한 제재였습니다. 물론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끝까지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산조각난 꿈, 심화되는 고립, 북한 인민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이 응당 누려야 할 존엄성과 기회 사이의 확대되는 괴리, 즉 익숙한 것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더 이상 도발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것이 당신들 앞에 놓인 선택입니다. 당신들이 내려야 하는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지도자 여러분, 부디 평화를 추구하여 북한 인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허락할 용기를 내십시오.

이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NPT 체제 하에서 이란은 평화적인 핵 에너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언제나 이란의 평화적인 핵 에너지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언제나 그러한 도움을 거절했고, 그 대신 부정과 기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이란이 고립된 이유입니다. NPT 회원국으로서 유일하게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납득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유례없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란의 핵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이란의 지도자들과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이란의 평화적인 핵 에너지 사용 권리를 보장하는 외교적 해결책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러시아와 중국의 지도자들과 만나 이란의 의무 이행이 전제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란 지도자들은 그들 앞에 놓인 선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세는 이란 지도자들에게 진지하고 발 빠른 대처를 요구합니다. 이란은 자국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란과 북한의 아집과 독선에 맞선 국제사회의 대응 속에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이 확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범 하에서 조약은 구속력을 갖습니다. 규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보유한 정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두고 보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또 다른 영역에서 거둔 성과와도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목적의 원자력 사용을 향한 국제사회의 한층 강해진 결의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비극 이후, 각국 정부는 핵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원자력 기술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혜택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 기술은 식품 안전 유지에 사용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합니다. 원자력은 암을 치료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는 최첨단 의료기술입니다. 당연히게도, 청정 에너지인 원자력은 기후 변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원자력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핵무기를 배격하고 평화로운 핵 에너지를 채택하는 국가가 얼마나 큰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 주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부로서 미국이 원자력 산업을 재개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건립을 지원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 개발을 담당할 차세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과학자들이, 나아가 여러분 세대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 하나는 바로 핵연료 주기(fuel cycle)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즉,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 과정 자체가 불량 국가와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무기를 입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선 안 되는 핵물질을 마치 분리 플루토늄(Separated Plutonium)을 비축하듯 무한정 쌓아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제 핵연료 은행(Fuel Banks)을 창설하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핵의 악용 위협을 높이지 않고도 여러 나라가 필요한 핵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민간 핵협력(Civil Nuclear Cooperation)을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핵연료 주기를 개발하겠다는 전 세계적 차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위험한 핵물질을 훔치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핵연료 주기에 관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원자의 경이로운 힘이 파괴가 아닌 창조에 사용되는 미래를 위해 미국과 함께 할 것을 다른 나라에 호소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제가 오늘 설명 드린 여러 가지 노력이 어떻게 서로 선순환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핵안보가 강화되면 안전하고 깨끗한 핵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핵 에너지를 다루는 더욱 안전한 방법이 개발되면 핵테러와 핵확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때, 다른 국가에게도 그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할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우리는 핵 무기가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다가갑니다.

우리의 미래상을 비웃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들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진보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한국에 와 보십시오. 전쟁의 잿더미 위에 빛나는 도시를 일으켜 세운 이 나라에 와 보십시오. 어제 제가 서 있던 비무장지대에 가 보십시오. 발전을 열망하고 국민을 위하는 나라와 제 나라 국민을 굶기는 나라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격명한 대치를 이루고 있는 그곳에 한번 서 보십시오.

이 훌륭한 대학에 와 보십시오. 새로운 세대가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가며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는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는 이 대학에 와 보십시오. 와서 오늘이 자리에 오신 용기 있는 분들을 만나보십시오. 이 분들은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이 알던 세상의 전부를 등진 채 자유와 기회를 찾아 목숨을 걸고 이 곳 남한에 오신 남녀노소 새터민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 여정 속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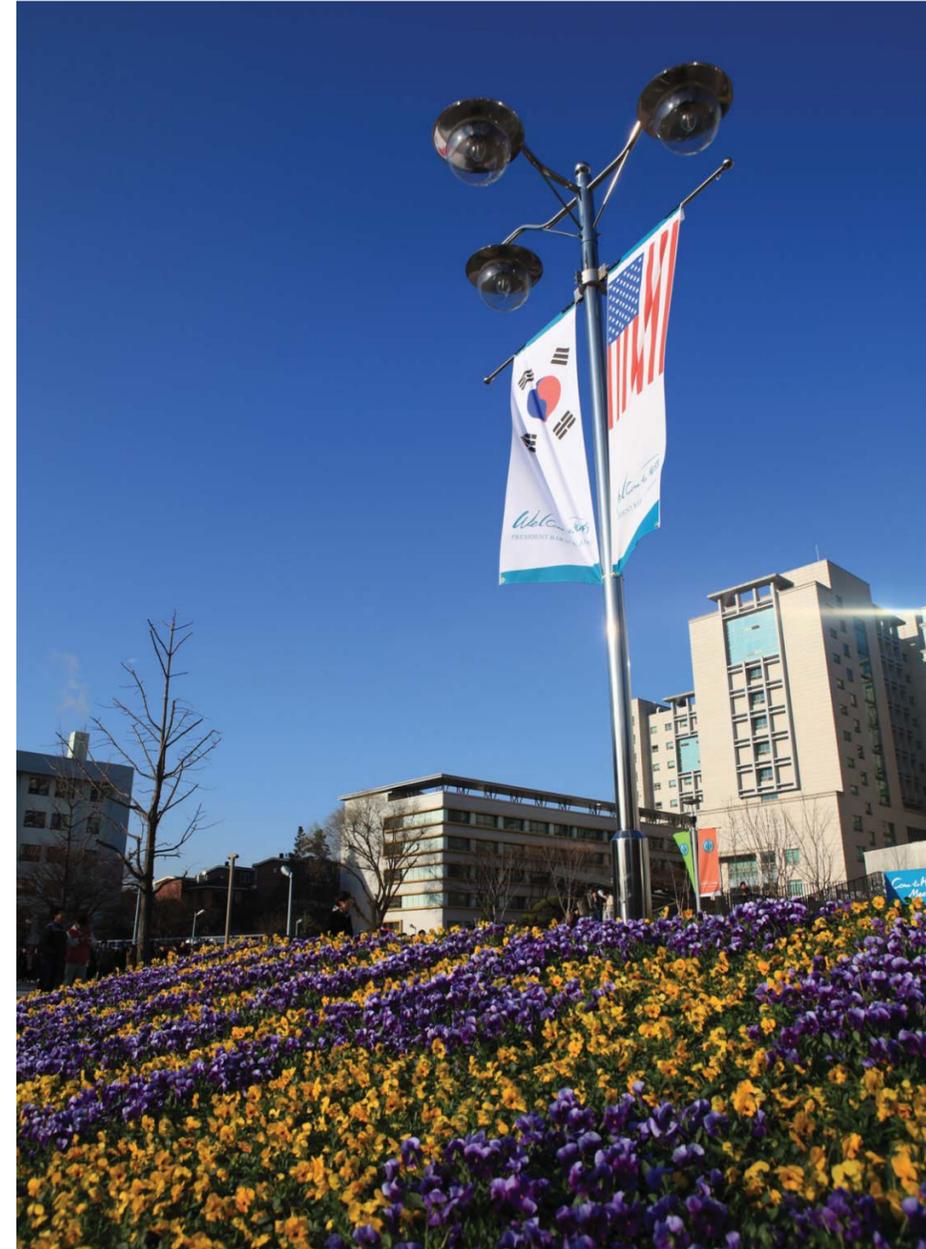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한민족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리고 자유만 주어진다면, 북녘 땅의 한국인들 또한 위대한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제 비무장지대를 둘러보면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역시 바뀔 수 있음을 웅변해주는 또 다른 민족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끔찍한 전쟁 끝에 자부심 강한 한민족이 돌로 갈라졌습니다. 요새화된 국경선을 따라 중무장한 군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미래를 꿈꾸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힘과 인간의 희망을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날 독일 국민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된 자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과 독일이 같은 길을 걸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존엄성을 향한 깊은 열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진 한반도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한국인이 열망하는 그 날이 쉽게, 또는 희생 없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기어오를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한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검문소가 열릴 것입니다. 감시 초소가 텅 빌 것입니다. 오랜 세월 헤어졌던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한민족은 마침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핵무기 없는 세상처럼, 하나 된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그 날까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한미 양국의 위대한 동맹 덕분에, 그리고 우리가 모든 한국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굳게 지지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안보와 우리가 원하는 평화의 실현이 더 가까워졌음을 확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함께 단결하고, 함께 협력하며, 함께 갑시다.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학교 학생 4인의 특별 좌담회>

# 오바마 연설, 학생들의 입장에서 말하다

Nice to meet you Mr. president 용기 낸 덕에 오바마 대통령과 악수했죠.



장현숙(대학원 북미지역학 11)

인생선배로서 학생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하면 더 따뜻한 연설이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휘준(사회·언정 12)

미투데이와 카카오톡 언급은 이번 연설을 위한 사소한 관심과 배려가 아닐까요?



신비(국제·국제 10)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면 내실을 탄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상혁(동유럽·우크라이나어 12)

**외대학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들은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장현숙**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북미 지역학을 공부하고 있어 평소 미국에 관심이 많았어요.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기회이기에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신비** 저 역시 전공 덕분에 국제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강연에서 말했던 주요 이슈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으니 실감이 안났어요.

**이상혁**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다는 것이 21년 인생 중 가장 큰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동했어요.

**정휘준** 아직 대학에 입학한지 얼마 안 된 새내기인데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외대학보** 우리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장소로 한국외대를 선택한 요인은 무엇 일까요?

**장현숙** 오바마가 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학교가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다보니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국제정세에 더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비** 대학생 모의 핵 안보 정상회의가 서울배움터에 경총에서 지난 달 2일(금)부터 3일(토)에 걸쳐 개최됐어요.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모의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라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상혁** 우리학교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언어를 가르치는 대학교라고 알고 있어요. 외국어를 배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많은 영향력을 끼칠 학생들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훗날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 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외대학보**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주제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역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학생의 입장에서 본 한국의 위치와 역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혁**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이 강대국의 위치라고 이야기 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실을 탄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휘준** 국제사회에서 핵 미 보유국이라는 것을 한국의 위치라고 정해놓는다면 한국은 열강들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역현안에 대해 단호하게 발언을 하고 실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장현숙**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치가 애매하고,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비**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NPT에서 핵보유를 자진해서 포기한 국가들에 대해 '정상'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하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6일(월)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는 약 70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본지는 연설을 들은 4명의 학생을 선정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이번 연설에 대해 좌담회를 가져 의견을 나눴다.  
\*사정상 3월 27일(화)과 28일(수) 나눠서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편집자주>



▲지난달 27일(화) 서울배움터 학보사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여한 ▲정휘준 ▲신비 ▲장현숙(왼쪽부터)씨.

이런과 북한이 현재 이기적인 국가라며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 미 보유국인 한국이 아시아와 다른 국가들에게 핵 안보를 위해 힘쓰는 역할을 한다면 본보기가 왜 한국의 위치에 대해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외대학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서는 특히 정치적 발언이 많아 이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핵 안보 정상회담이라는 시기와 대학이라는 장소를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숙** 국제사회에서 민감한 사항에 관해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학교에서 연설을 하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때문에 강연내용이 핵 안보 회의와 연계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신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딱히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다른 연설을 많이 접해왔는데 이번 연설이 그 전 연설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거든요. 평소 오바마 대통령 연설에도 핵 안보 관련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정휘준** 사실 저는 오바마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정치적 발언이 비교적 많았다는 점입니다.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연설을 한만큼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기 전에 대학생들을 겪은 인생선배로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하면 좀 더 따뜻한 연설이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강연내용에 정치적 발언이 많았던 것은 시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들을 비롯한 동문들이 앞자리에 자리배치가 돼 오바마 대통령이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 대학 강단에 서는데 제일 앞에 학생들이 앉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하는 생각에 주객전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

**외대학보** 오바마 대통령 연설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장현숙** 연설이 끝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어서 저도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갔어요. 사람들 틈새로 "Nice to meet you Mr. president" 했더니 "How are you"라고 대답하며 악수를 해줘서 2시간 기다린 보람을 느껴요.

**이상혁** 3시간을 기다려 앞쪽에 앉은 저도 악수하려 뛰어갔지만 사진을 찍느라 늦었어요. 오바마 대통령과 눈이 서로 마주치고 손이 바로 직전까지 다가왔지만 사람이 많아서 그대로 경호를 받고 나가서 정말 아쉬웠습니.

**신비** 이번 행사에서 학교의전으로도 뽐히고 700명중에도 뽐냈는데 의전을 뺀해서 안내를 도와줬습니. 처음에는 힘들어서 후회도 했지만 평소 미 대사관과 친분이 있어 우연한 기회로 VIP석에서 연설을 듣게 됐습니. 그래서 실망과 행복한 기분이 오락가락한 속된말로 매순간이 깨달 같았어요.

**외대학보** 그렇다면 이번 연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마디가 있다면요?

**장현숙** "같이 갑시다"라는 말은 연설에서 많이 하

지만, "함께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실제로 들으니 더 벅차고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휘준** 저는 초반에 '미투데이'와 '카카오톡'을 언급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 커뮤니티를 언급한 것이 어찌 보면 한국이 IT분야의 강국인 장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하게 됩니.

**신비** 또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아닌 한국에서 통용되는 커뮤니티를 언급하는 것이 사소하지만 세심한 배려가 아닐까요.

**외대학보**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가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입장에서 어떤 발전 바랍니다?

**장현숙**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한국의대가 세계로 알려지는 일이었습니. 실시간 생중계가 됐고 영국 BBC홈페이지에 사진이 실리는 등 대내외적인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입니. 이로 인해 앞으로 외국인 학생과의 교류 등 여러 대내외적인 학교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

**이상혁** 연설 첫 부분에 '이렇게 훌륭한 대학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발언이 전 세계에 퍼졌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칩니. 이에 걸맞게 이번 일이 유학제나 외국인 학생과의 교류에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외국어과 신설을 하는 등 명실상부 글로벌 대학교가 되는 발전의 기회가 됐으면 합니.

**정휘준** 후배들에게 학교자랑 거리가 한 가지 더 생겼습니. 하지만 일각에선 생중계 중 학생들의 태도가 문제시됐고 이 학생들을 향한 마녀사냥이 이뤄진 일이 아쉽습니. 이번 일을 통해서 학교의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내부의 잘못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학생들의 의식 또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

**신비** 저 역시 학교내부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이 커지고 이를 기자가 보고 인용해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쉬워요. 외대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에 학교의 미흡한 진행과 학생들의 미성숙한 태도라는 옥의 티를 남긴 것 같아 아쉽습니.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제 얼굴에 침 뱉기 식으로 외부에서 공격할 거리를 제공한 것 같아요. 때문에 앞으로 큰 행사를 진행하면 학교는 더 능숙하게 진행하고 학생은 더 성숙한 태도를 갖추어 한다고 생각합니.

문나윤 · 홍규원 84beginning@hufs.ac.kr

**\*NPT?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약자로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이다.**

**\*국가의전이란? 국가행사, 외교행사, 국가원수 및 고위급 인사의 방문과 영접에서 행해지는 국제적인 예의를 의미한다.**

# HUFS SKETCH



### 내 등에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로 들뜬 건 우리나라 학생들뿐만이 아니다. 우리학교에서 재학 중이거나 유학 중인 많은 외국인 학생들도 미국 대통령을 마주할 일상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 티셔츠를 입고나온 외국인 교수. '내 귀에 캔디' 아니죠? '내 등에 오바마' 맞습니다~!



### HUFS 울타리

지하에 위치한 미네르바 콤플렉스 위 난간에 따개비 마냥 다닥다닥 붙어있는 저들의 정체는? 행운의 티켓은 얻지 못했으나 혹시나 입장하는 오바마 대통령 뒷모습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에 몰려든 학생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 쪽 통로를 이용했다고 한다. 비록 뒷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너무 실망하지 않길.

사진 홍보실 제공



### "빨리 입장하고 싶어요"

새벽 6시부터, 어쩌면 그보다 더 일찍 오바마 대통령 강연을 듣기위해 미네르바 홀 밖에 줄을 선 학생들. 아직은 쌀쌀한 날씨인데도 일찍부터 나와 줄을 선 모습을 보니 앞자리를 사수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오바마 대통령 강연, 아이돌 가수 콘서트 못지않아요!

사진 홍보실 제공



### 행운의 RED TICKET

설명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연설장에 참석할 수 있었던 행운의 학생 700명은 미국 백악관에서 직접 무작위로 선발했다고 하는데... 초콜릿 속 황금티켓을 얻어 윌리엄가 초콜릿 공장에 갈 수 있었던 영화 주인공 찰리가 떠오른다. 황금티켓이 아닌 행운의 레드 티켓을 거머쥔 700명의 학생들, 강연은 어떠셨나요?

사진 홍보실 제공



### 카메라는 튼튼 씨요

그 어떤 사건보다 뜨거웠던 취재일기. 카메라 행렬만으로도 알 수 있겠다. 이 많은 카메라 수가 미국 대통령 방문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증명하는 것 같다. 저 카메라 렌즈에 우리 학교와 학생들의 모습도 담겨있었지?



### 한마디도 놓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강연이 시작된 후 강연장 안 우왕좌왕 떠돌아다니던 학생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일까, 매의 눈 못지않은 우리 학생들의 집중하는 눈빛. 영어 연설임에도 통역 없이 청강하는 학생들의 모습, 강연좌석에 Global이란 단어가 새겨진 이유다.

# 역사의 현장에는 그들이 있었다

## 통번역대학원 교수 3인방을 만나다



G20 정상회담에 이어 2012 핵안보정상회의까지 굵직굵직한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치러질 때, 그 누구보다 바쁘게 뛰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여러 언어가 쓰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그들은 바로 통역가이다. 여기 '글로벌'의 최전선인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의 통역을 담당할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 세 분이 있다. 각각 화려한 경력을 가진 김진아, 이영백, 한원덕 교수님의 생생한 경험담을 지금부터 들어보자. (편집자 주)

### 〈김진아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주임교수〉

**외** 교수님께서 지으신 책의 내용 중 저자 소개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중국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가 돼있었습니다. 탁월한 중국어 실력 덕분에 통역사 외에 다른 분야도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역사를 꿈꾸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에서 '민간 항공기 납치 사건'이 발생했어요. '민간 항공기 납치 사건'은 중국의 민항기가 납치범들에 의해 납치가 돼 우리나라 춘천에 불시착한 사건을 말해요. 우리 정부에서도 중국인들의 갑작스런 불시착에 당황해 급하게 통역 가능 인원을 파견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저는 포함하여 총 10명의 여대생들이 통역을 맡았는데 9명의 학생들은 민간인 통역을 맡았고 제가 기장단 통역을 담당했어요. 그때 제가 통역을 맡은 사실이 당시 신문과 TV를 비롯해 여러 매체에서 소개가 됐죠. 민항기 사건이 어떻게 보면 계기가 돼 본격적으로 통역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 김진아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교수

**외** 우리학교의 특성상 주위 친구들을 보면 통역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대학시절 뒤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서는 대학시절 어떻게 통역사의 길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 학생시절 1학년 때부터 우리학교의 외대 통역협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사실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만 해도 통역사라는 직업이 좀 생소했어요. 통역협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통역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학부를 졸업하고 통역에 대한 이론을 보다 심도있게 배우고 싶어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원생 시절에도 대사관에서 통역도 하고 88올림픽에서도 통역을 맡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실무경험을 쌓아왔어요.

**외** 교수님께서서는 통역사가 되기 전 스스로 '이런 통역사가 되고 싶다' 하고 다짐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김** 저는 통역사가 되기 전 두 가지 다짐을 했어요. 하나는 제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용을 지켜 양측 간의 입장을 공정히 전달하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통역사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대만의 건설교통부장관과 그 팀원들의 통역을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보며 대만 장관에게 각지의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죠. 여행이 끝난 뒤 그 대만 장관분이 저에게 과거 한국 여성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저와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짐한 두 가지 내용을 지킨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영백 통번역대학원 초빙교수〉

**외** 교수님께서서는 통역사로 14년 동안 일하셨는데, 통역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통역은 언제였나요?

**이** 한·중 수교를 체결할 당시 했던 통역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1992년에 있었던 한·중 비밀회의를 통역할 당시 친미국가들에게 적대성을 나타냈던 중국이었기에 먼저 한·중 수교에 대한 얘기를 꺼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인 이상욱 외교부장도 믿기지 않았는지 저에게 수차례 통역을 시켰습니다. 결국엔 이상욱 외교부장이 영어로 직접 물어보기 까지 했죠. 그만큼 고대하던 한·중 수교라는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한 일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외** 첫 한·중 수교에서 활약한 주역이시라니 놀랍습니다. 그 당시 통역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이** 정상외교 통역가는 식사 시의 대화도 철저히 보안할 만큼 모든 내용이 비밀이어야 합니다. 첫 한·중 수교인만큼 회의의 내용을 자칫 잘못 누설하면 나라에 해를 끼칠 수도 있었어요. 보안에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비밀회의를 마치자마자 짐을 챙길 겨를도 없이 귀국해 그 길로 노태우 전 대통령께 사실을 전했습니다. 회의내용은 비밀회의에 참석한 중국 측 대표와 통역사, 이상욱 외교부장과 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중국에서 같이 생활했던 주변 사람들은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사라져 실종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해외로 통역하러 갈 때는 다른 사람들은 시차적응 하느라 잠자고 쉬는데 저는 통역을 준비하느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밤샘작업을 마치고 회의장에 도착하면 저 혼자 수척한 얼굴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외** 경험도 풍부하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만의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통역을 잘하는 노하우가 따로 있나요?



▲ 이영백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초빙교수

**이** 제가 학생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말인데요. 현장에 적어도 30분전에 미리 가서 마음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30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면 충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안보적인 문제 때문에 통역가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한 예로, 원고를 미리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습니다. 현역시절에는 원고를 통역하기 5분전에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번역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원고를 덮고 통역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원고도 읽지 않고 통역을 한다"고 놀라워했지만 그 때 전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하지만 회를 계속 내면 통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성공적으로 통역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저의 습관 덕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 〈한원덕 통번역대학원 교수〉

**외** 방금 2012 핵안보정상회의 한-칠레 통역을 담당하고 돌아오셔서인지 통역사로서의 자부심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통역사만의 매력이라면 소개해주세요.

**한** 통역사는 정상회담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압감이 매우 큽니다. 통역사가 말하는 분위기, 표정 등도 외교에서는 상대 국가의 사안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모든 일을 즐겁게 만듭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각국의 정상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는 건 그 무엇보다도 보람찬 일이지요. 통역이 끝난 후 제가 맡은 각국의 정상들이 '수고했다'며 악수를 청해올 때는 그동안의 힘들었던 일을 모두 잊어버릴 정도로 행복해 집니다.

**외** 우리학교 학생들은 타 학교에 비해 외국어와 친숙하고, 실제로 많은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학교가 통역가를 배출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우리학교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뿐 아니라 여러 소수 언어 전공이 있습니다. 물론 언어를 공부한다는 자체가 다른 통역가 지망 학생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학교 통역대학원에는 8개 언어 통역 프로그램만이 갖춰져 있어 많은 학생들이 대학 전공 언어의 통역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언어 전공을 신설하고 영어를 거쳐 통역을 하는 순차통역 프로그램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야 합니다. 그 후 동시통역을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면 미래의 글로벌 통역사 배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외** 마지막으로 통역관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한원덕 통번역대학원 한서과 교수

**한** 우선 자기 전공의 외국어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최고가 되길 바랍니다. 어중간한 실력은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되라는 말에 조바심을 내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외로 최고의 자리에 가는 방법은 쉽습니다. 바로 기본기 다지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스페인어 사전을 펴고 예전에 외웠던 단어를 하나하나 복습합니다. 책상에는 항상 새로 외운 단어를 메모지에 써서 붙여놓고 수시로 확인해봅니다. 이런 철저한 기본기가 여러분을 정상의 자리에 올려줄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상대 국가의 문학작품을 많이 읽기를 권합니다. 문학작품 속에는 그 나라의 △환경 △문화 △사람들의 정이 녹아 있어 통역에 필요한 기초를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학작품에 쓰인 표현도 고급 회화 구사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학은 높은 수준의 통역을 할수록 통역사의 역량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한껏 키운 후배들을 정상회담 자리에서 만나게 되길 기원합니다.

강유나 우보연 홍규원 기자  
84kwhong@hufs.ac.kr

# 헝가리 대통령도 우리학교 방문 학생과 만남의 시간 가져

팔 슈미트(Schmitt Pál) 헝가리 대통령이 지난달 29일(목) 우리학교를 방문했다. 서울배움터 미네르바 콤플렉스내 국제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00여 명의 헝가리어과 학생들이 초청됐다.

박수영 헝가리어과 학과장의 소개 아래 입장한 팔 슈미트 대통령이 헝가리어로 짧은 연설을 했으며, 이상동 교수가 이를 통역했다. 팔 슈미트 대통령은 연설에서 "헝가리어는 세계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지만 상당히 훌륭한 언어다"라며 "여러분이 헝가리어를 배울 수 있는 이상적 환경이 이곳 한국외대에 마련돼 있어 감사하다"고 기쁨을 표했다. 더불어 한국과 헝가리는 오랜 수교를 통해 돈독해 진 형제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술적·경제적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설 이후 팔 슈미트 대통령은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과거 펜싱 금메달리스트였던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지, 헝가리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헝가리로 진출하면 경쟁력이 있을지 등 평소 궁금해 하던 부분을 물었다. 대통령은 헝가리어로 유창하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에게 감탄하며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헝가리어과 학생들을 촬영하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박철 총장은 대통령에게 명예동문증서를 전달하며 "국내 유일의 헝가리어를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학생들을 위해 헝가리어판과 도서를 기증했다. 윤광현(동유럽·헝가리 12) 군은 "신입생이라 아직

헝가리어에 미숙하지만 오늘 헝가리 대통령을 만나 많이 고맙습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했던 유혜원(동유럽·헝가리 07) 양은 "그동안 헝가리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했는데 대통령을 만나 소통하면서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한 확신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지혜 기자 84ladypress@hufs.ac.kr

## 사설

### 외대학보는 외대의 역사다

1955년 4월 11일, 외대학보 창간호가 발간된 후 57년 동안 외대학보는 우리학교의 유일한 국문 언론사로 학교의 역사와 언제나 함께 해왔다.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 외대학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때로는 학교당국에 투쟁을 하기도 했으며, 옳지 않은 일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투쟁도 서슴치 않았다. 이렇듯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학보의 역할은 조금씩 달랐지만 '자유언론 정론지필'이라는 변함없는 기조 아래 학보는 여전히 발행되고 있다.

변함이 없는 건 비단 기초뿐만이 아니다. 외대학보는 어떤 일보다 학내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최우선해야 할 역할로 삼을 것이며 따라서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시각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독자들을 배려한 신문을 만드는데 외대학보사의 모든 구성원들은 동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런 학보의 노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수습기자 모집에서 301의 경쟁률을 보이던 전성기는 지났으며, SNS 소셜네트워크가 대세인 시대에 종이 매체의 위기와 신문의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는 커져만 간다. 학보를 읽는 학생들은 줄어만 가고 학교의 홍보지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하지만 외대학보는 그 어떤 쪽의 신문도 아닌 외대 모든 구성원들의 신문임을 기억하고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과정과 결과가 결국 외대의 역사가 될 것이며 이번 948호 또한 우리의 역사로, 자부심으로 남게 될 것이다.

### 세계 초일류대학 HUFS를 염원하며

3월 26일은 우리나라 대학 및 한국외대의 역사에 중대한 날이다. 이 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대학을 방문해 특별 강연을 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한 그 대학이 바로 우리학교였기 때문이다. 3월 26일, 한국외대는 전 세계 신문과 TV 뉴스를 장식한 대한민국 대표 대학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한국외대가 선택되었는지 궁금해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나라 대통령 한 사람이 다녀간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학교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냐 말하며 애써 오바마 대통령 방문의 의미를 축소하려 한다.

일부 언론은 한국외대가 캠퍼스 규모 때문에 경호가 용이해 선택되었다거나, 영문 명칭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에서 'of Foreign Studies'가 백악관의 눈길을 끌었을 것이라는 등의 추측성 보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 서울 캠퍼스가 주택가, 시장통, 좁은 도로변에 위치한 탓에 실은 경찰 측에서 경호상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백악관 공식 발표 자료에는 정작 우리 대학 교명의 'of Foreign Studies' 부분이 빠지고 그냥 Hankuk University로 표기됨으로써 우리 대학 구성원이 크게 아쉬워했던 점을 안다면, 한국외대가 캠퍼스 규모나 영문 교명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펼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백악관이 한국외대를 선택한 이유는 자명하다. 한국외대는 주요 언론사 대학 평가에서 여러 해 동안 국제화지수 1위에 오른 학교이다. 게다가 우리학교는 45개 외국어를 가르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어 교육 기관으로 졸업생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외교관, 기업인, 교육자, 봉사자 등으로 일류문명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 방문으로 한국외대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졌다고 보기는, 한국외대가 원래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대학교이고, 원래 대한민국 대표 대학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외대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제 한국외대는 지난 58년 역사에서 쌓은 대한민국 대표 대학의 위업을 뒤로 하고, 전 세계 학문과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대학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대학이 짊어진 역사적 소명이다.

## <동문의 편지>

### 자랑스런 모교, 한국외대에게

오늘의 외대를 만드는데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박철 총장을 비롯한 역대 총장과 현 교직원, 그리고 13만 명에 달하는 졸업생을 비롯한 전체 외대가족의 노력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를 치하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외대연설은 세계 역사상 영원히 크게 기록될 것이며 세계 수많은 대학 중에서 그 이름이 한국외대만큼 언급된 대학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외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혼자 축배를 들었습니다.

최상혁(영어·영어 54)

오랫동안 국제화교육을 지향하며 세계적인 인재양성에 최대의 대학교육목적을 두었던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은 국제화교육의 명성과 인식을 얻었습니다. 세계 명문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되기 위해 13만 외대인은 금지를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갑니다.

캐나다 동문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모교방문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외대인으로서의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세계를 향한 대학교로 인정받고 글로벌 대학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모교의 눈부신 발전을 우리 미주동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를 위해 힘껏 성원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글로벌 CEO 원우회

이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우리의 자랑스러운 외대를 택하여 특별 강연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인정 받은 대학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제가 재학할 당시는 6개 국어에 국한되었는데, 현재는 45개 국어를 가르치는 세계 으뜸가는 대학으로 외대가 성장한 것을 다시 한 번 동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희덕(영어·영어 56)

## 외대학보

www.oedah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오유진

부장 서상아 신혜지 조인우

차장 강유나 문나운 안지혜 우보연 이은수 홍규원

조교 김병호 이현주

제작 (주)경보기획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9)2173-2504 / 02)2173-2505(F)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트위터 @hufspress1955

## 오바마 삼행시

외대학보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하여 '오바마 삼행시'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86명의 학생들이 100여 개가 넘는 삼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학생들께 감사드리며 당선작을 게시합니다.

### <1등>

오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바

바로 이 자리에, 대한민국에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해 모였습니다

마

마주향한 평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진정한 세계평화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병용(어문·중앙아시아어 08)

### <2등>

오

오대양 육대주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바

바운더가 사라지고

마

마음을 공유하는 날이 오기를

박근찬(중국·지역 11)

### <3등>

오

오늘도 노력하는 그대들이여

바

바라고 바라건대

마

마음 속 그 꿈들 모두 이루기를

하인웅(영어·영어 10)



외대학보

역사적 순간에는  
언제나  
외대학보가  
함께합니다

